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왕국절 제9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맑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주님을 찬미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곱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터뜨리는 사람들의 감탄사가 하나님에 대한 찬미인 것만 같아 덩달아 마음이 즐겁습니다.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은 쓸쓸하지만, 힘겨운 일을 마친 후의 휴식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그 즐거움과 쓸쓸함 그리고 편안함이 우리의 숨이 되고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삶도 조금씩 무르익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결기는 점점 삭아들고,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웃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66:20	인도자
♠ 교 독 문	19. 시편 84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최인환 선생 II. 한완식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40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함께
성경봉독	빌4:6-7	인도자
	딤후2:8-15	인도자
찬 양	성가대	
말 씬	감사의 기도	김재흥 목사
	미쁘신 주님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21. 어느 민족 누구게나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
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진
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과 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때로 세상의 돌부리에 걸려 비틀대는 우리들이지만,
언제나 미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
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모든 사람 속에 계신 그리스
도의 현존을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봉사를 위해 우리 자신
을 봉헌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강좌(35)	신명기 강해(19)
기도: 김재흥 목사	기도 : 장혜숙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한지혜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최영혜 집사

10월	영접위원	구성실	고사일	하현철	박석희	이기분	최영선
	헌금위원	조병무	이호원	김근종	유영남	최숙화	안정숙

가을 잡감(雜感)

월요일 아침 우리 집 위치를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택배회사였습니다. 받을 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내지는 장애인 단체 명의의 물품들에 어지간히 넉더리를 내던 터라 반갑지 않았습니니다. 하루를 산에서 보낸 후 저녁에 돌아와 보니 현관 입구에 골판지 상자가 하나가 놓여있더군요. 보낸 이의 이름과 주소부터 확인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정 깊은 벚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개봉했습니다. 상자는 신문지를 경계로 해서 두 단으로 분할되어 있었는데 윗단에는 탕자와 사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콩 꼬투리가 앙증맞게 담겨 있었고, 아랫단에는 고구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느라 새까맣게 그을린 모습을 보았었는데, 아마 가을걷이를 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 보내온 것 같았습니다. 지리산의 웅장함이 담긴 그림 엽서 뒷면에는 그의 성품을 닮은 부드러운 글씨체로 이런 인사말이 쓰여있었습니다.

이 가을(푸른 하늘, 누런 들녘, 찬란한 산야)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한해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불현듯 제 마음에 가슴 뭉클한 가을이 들어왔습니다. “사랑으로 멎는 자죽도 없이 맞이하는 가을의 맨살에 오소소 소름이 돋는다”고 노래했던 어느 시인처럼,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찬탄하기에는 삶의 치열함이 부족한 것 같아 쓸쓸하던 참입니다. ‘지난 한해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 말이 저를 참 부끄럽게 하네요. 한 일 없이 듣는 감사의 인사처럼 난감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속장 인도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전남 장성의 백양사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절집을 보려고 간 것은 아니고 가을의 내음을 맡으려고 택한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먼길이었지만 일상을 떠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주는 흥겨움 때문에 지루한 줄 몰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을걷이가 끝난 들녘은 쓸쓸했고, 아직 벼 베기를 하지 않은 논은 말 그대로 황금들녘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곡식이 누렇게 익은

별판을 바라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고희의 아를르 시대의 그림을 보면 그가 노란색에 얼마나 열광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색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노랑은 빛에 가장 가까운 색이라는군요. 그리고 노랑은 식물과 동물을 번성케 하는 색입니다. “빛을 주는 노랑은 옅고 그른 모든 것 위에 빛나는 태양처럼 모든 것 위에 퍼지고 흘러가려고 한다”(마가라테 브룬스). 아, 알겠습니다. 가을빛으로 빛어낸 노랑 별판은 모든 사람들을 두루 감싸는 너그러움이군요.

아기자기한 산야를 마음껏 눈으로 즐기다가 차안이 너무 조용하다 싶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차를 타면 늘 기쁨 조 역할을 하던 웅 자매(?)—정 궁금하신 분은 안홍숙 집사님이나 유경순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 너무 조용한 겁니다. 뒷자리로 가서 웬일이냐고 했더니 “몸이 작년과 다르다”고 하더군요. 원 참 기가 막혀서! 한참을 췌려 봐주었습니다.

아직 단풍이 물들지는 않았지만 백양사의 주변도로를 걸어 숲에 드는 맛은 일품이었습니다. 천천히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다보니 저절로 마음이 순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정진규 시인의 <白羊寺>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양들의 울음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양들의 떼울음
소리 한 채 절로 잠재우는 白羊寺,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을 만큼만 편안하게 머물다 가라 하였다 덕분이었
다 겨우 속울음으로 등돌릴 수 있었다

우리 영혼의 치유는 고요함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 속에서 울어대고 있는 양들의 떼울음 소리를 그치게 해줄 곳은 어디일까요? 게으르고 번잡스런 잡담과 생각에 재갈을 물리는 것보다 영혼의 정화에 더 유용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 전통은 음식을 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의 금식’(A Fast from Speech)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끊긴 자리, 잡다한 생각이 끊긴 자리,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요 자기 자신의 본 모습과 만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뭇잎들은 자기 고향인 대지가 그리운 듯 자꾸 땅을 향해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와 하나되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 가을에 고요해지 시기를 바랍니다. (석)

■ 마/음/으/로/읽/는/글

삶의 리듬을 그분의 리듬에

우리의 심오한 인간으로서의 의무는
신의 행군 리듬을 해석하거나
밝히는 것이 아니라, 급히 지나가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의 리듬을
그분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우리들 필멸(必滅)의 인간은
불멸의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
그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불멸인 그분과 함께 나아간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사소한 일들에의 집착을,
또 우리들 좁아터진 머리의 협소함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빛도록 주어진 흙투성이 물질의
예속을 자유로 바꿀 수 있으리라

— 니코스 카잔차키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한글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종훈 안경숙 조관행 홍선희 박창운 허정윤 이한림 김명희 조문규
진정숙 정완수 김재광 임창선 김혜권 박순희 이유선 방극숙 임보람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유증희 이재문 김홍기 김명순 김남중 오복순 이갑재
최동운 박찬정 이은자 정진경 허광식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철수 이정은 한상익 최종원 한선희 최동운 박찬정
유준모 한성건 김혜진 이권화 정경례 무명1

구도헌금: 제1여선교회

◇ 속 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노봉임	이인웅
베들레헴	윤정덕	정경례	김미순	김영한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이춘희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선	김명순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박애순	안정숙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김춘려	백묘현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이인섭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희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한선희	장혜숙	이순정
빌립보	최종원	이형숙	이형숙	최종원
가버나움	구성실	안홍숙	구성실	이봉옥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김희우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박혜경	김혜권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방극숙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최영혜	박혜경
두란노	안종일	정현주	교회	교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10월 정기임원회가 열립니다.
2. **학생부 야유회** : 오늘 중고등부가 과천대공원으로 야유회를 다녀옵니다.
3. **총회** : 제26회 감리교회 총회가 27일(수) 오전11시부터 28일(목)까지 광림교회에서 열립니다. 최초로 4년제 전임감독과 연회 감독을 선출하는 투표를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26일(화) 오전 10시 효창교회에서 열립니다.
5. **심방** : 가을철 심방이 이번 주일로 종료됩니다.
26일 - 다메섹 28일 - 가나안
6. **신앙강좌** : 다음 주일(31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48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가늠해보는 기념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강사는 한인철 목사님(연세대학교)입니다.
7. **추수감사주일** : 올해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첫째주인 7일로 정했습니다. 살아온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8. **신앙실천** : 낙엽 지는 이 가을에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거두어야 할 것은 거두는 것이 생의 지혜이겠습니까? 많이 비우고 많이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헌화 : 유영남 권사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